

2-4-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누가복음 23:39-43

말씀제목: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천상에 앉히신 은혜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악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만큼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이나 강도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를 욕하며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그를 되받아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을 “주”라 불렀을 때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고 증거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그 당시 낙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그 맞은 편에 있는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6:19-24) 아브라함의 품은 율법 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 잠시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들어가 예수께서 피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예수께서는 회개하고 주를 부른 한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 품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들을 자신과 함께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낙원에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마 27:50-53)

사도 바울은 구약성도들의 부활을 첫 열매들이라고 증거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하늘로 휴거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전 15:20-24)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엡 2:1)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두 죽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두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미 허물과 죄들로 인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무엇이었는데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은 두
행악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손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엡
2:2)

이 두 행악자들 역시 우리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인 통치자 마귀를 따라 살다가
행악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 역시 구원 받기 전에는
그들 행악자들처럼 마귀 자녀들처럼 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엡 2:3)

그러나 우리가 한편 행악자처럼 우리가 이미
죄들로 인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한편 행악자에게 주셨던
말씀같이 우리들에게는 땅 속에 있었던 낙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 주시려 함이니라.”(엡
2:5-7)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어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스테판을 들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잠드니라.”(행 7:59-60)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평생을 죄만 짓다가 한편 행악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받았으니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어느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마 8:22)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편 행악자는 자신이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을 욕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마귀의 영을 따르면서 여전히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진노의 자녀들로 살면서도
자신들이 허물과 죄들로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조만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신부의 몸까지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눈깜짝하는 순간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매그네틱에 붙어버리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